

윤동주 ‘별 헤는 밤’의 미적요소를 응용한 금속조형 연구

고승근

원광대학교 귀금속보석공예과

Metal Sculpture Research Applying Aesthetic Factor of ‘Counting Stars at Night’ by Yoon Dong Ju

Seung-Geun, Ko

Dept. Jewelry and Design, Wonkwang University

요 약 현대의 디자인은 자연과 생물 형태를 지닌 것에서 주로 시작되면서 점차 디자인 대상은 한계에 부딪혀 디자인은 형태에서 감성을 담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개인적인 감성은 대중의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미 대중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대상을 선정하여 금속조형으로 시각화 하고자 했다. 연구자가 선정한 시각화 대상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인 윤동주의 ‘별 헤는 밤’으로 시각화하기 위한 미적요소는 선행 연구된 문헌들을 통해 미적요소를 선정하고 이를 금속과 원석, 착색기법, 세공 등을 응용하여 제작하였다. 그 결과 윤동주 ‘별 헤는 밤’의 시어 속에 내재된 감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미적요소를 선정할 수 있어 감성적으로 객관성을 잃지 않았으며, 완성된 금속조형물 속에서 윤동주의 ‘별 헤는 밤’의 깊은 감성과 금속조형물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무형의 대상을 형태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제어 : 금속조형, 리텔링 디자인, 윤동주, 별 헤는 밤, 시각화

Abstract Modern design started from having form of nature and biology and had gradually faced limit on the design subject, therefore changed to something with emotions. However, personal emotion is hard to receive sympathy from the public. Therefore the researcher have selected subject that is already receiving love from the public and tried to visualize it through metal sculpture. The subject selected for visualization is 'Counting Stars at Night' by poet Yoon Dong Ju who the Koreans love the most and the aesthetic factor was selected through prior studied literature and have made by applying metal, gemstone and coloring method. As a result the aesthetic factor could be selected understanding the emotion inside the poet 'Counting Stars at Night' by Yoon Dong Ju and have not lost objectivity in the emotions and could be able to feel the beauty of the metal sculpture with deep emotions of the 'Counting Stars at Night' by Yoon Dong Ju through completed metal sculpture. This served as a momentum for suggesting possibility of shaping the immaterial subject.

Key Words : Metal molding, Retelling design, Yoon Dong-ju, One night, Counting the Stars, Visualization.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wonkwang university in 2015

Received 15 December 2015, Revised 26 January 2016

Accepted 20 February 2016, Published 28 February 2016

Corresponding Author: Seung-geun, Ko

(Dept. Jewelry and Design, Wonkwang University)

Email: kogeun@wonkwang.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 목적

현대사회의 미적 감각은 디자이너의 생각이나 현존하는 지혜를 형태화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디자인의 미적 감각은 작가의 개성이나 자연물 등의 형태에서 시작되어 왔으나 이것은 곧 디자이너의 상상력에 한계를 가져온다. 따라서 유형의 물질에서 디자인 시작이 아닌, 무형의 것에서 미적요소를 파악하고 아름다움의 표현하는, 형상화할 수 있는 주제로 확대하는 안목과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형의 아름다움은 글이나 춤, 노래 등 일정한 형상을 지니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무형의 아름다움을 유형의 형태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지식과 문화, 작가의 개성이 함께 포함되어 보는 이에게 공감과 감동을 주어야하기에 주제는 대중적이면서 쉽게 이해 할 수 있으며 문화를 대변해야 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무형 이미지의 형상화 방법으로 텍스트 리텔링을 통해 미적요소를 선정하고 이를 금속조형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리텔링은 다시 쓰는 이야기[1]로서 기존의 작품을 시대에 맞게 해석하고 작가의 관점으로 형태화 하는 것을 말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무형의 아름다움을 유형으로 형태화 하는 과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문학 중에서도 간결한 단어들로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시문학으로 선정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중적인 시인인 윤동주의 '별 헤는 밤'을 금속조형으로 형상화 하고자 한다.

시문학을 형태화하기 위해 첫째, 윤동주의 일생과 윤동주 시인의 작품세계를 알아본다.

둘째,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윤동주의 시문학이 내포하고 있는 대표 단어들 선정하고 이를 디자인요소와 원리에 의해 결합, 응용하여 형태적으로 전개한다.

셋째, 전개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금속 재질과 원석을 응용하여 실제로 완성한다.

넷째, 완성된 작품을 중심으로 시문학의 미적요소와 대중적 공감과 아름다움을 함께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2. 본론

2.1 윤동주의 생애 및 작품세계

1917년 12월 30일 만주 북간도의 명동촌(明東村)에서 태어났으며, 기독교인인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 1941년에 서울 연희전문학교(延禧專門學校) 문과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에 있는 릿쿄[立教]대학 영문과에 입학하였다(1942), 다시 도시사대학[同志社大學] 영문과로 옮겼다(1942). 학업 도중 귀향하려던 시점에 항일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1943. 7), 2년형을 선고받고 후쿠오카(福岡) 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 그러나 복역 중 건강이 악화되어 1945년 2월에 생을 마치고 말았다.

28세의 젊은 나이에 타계하고 말았으나, 그의 생은 인생과 조국의 아픔에 고뇌하는 심오한 시인이었다. 윤동주는 15세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하였는데, 처녀작은 <삶과 죽음> <초한대>이다. 그의 짧은 생애에 쓰인 시는 어린 청소년기의 시와 성년이 된 후의 후기 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청소년기에 쓴 시는 암울한 분위기를 담고 있으면서 대체로 유년기적 평화를 지향하는 현실 분위기의 시가 많다. <겨울> <버선본> <조개껍질> <햇빛 바람> 등이 이에 속한다. 후기인 연희전문학교 시절에 쓴 시는 성인으로서 자아성찰의 철학적 감각이 강하고, 한편 일제 강점기의 민족의 암울한 역사성을 담은 깊이 있는 시가 대중을 이룬다. <서시> <자화상> <또 다른 고향> <별 헤는 밤> <쉽게 쓰여진 시> 등이 대표적인 그의 후기 작품이다. 특히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그의 대표로서 어두운 시대에 깊은 우수 속에서도 티없이 순수한 인생을 살아가려는 그의 내면세계를 표현한 것이다[2].

2.2 선행 연구 조사

2.2.1 윤동주 시문학의 특징

윤동주의 별이 빛나는 밤의 미적요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먼저, 윤동주의 시문학의 전체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세부적으로 '별 헤는 밤'의 세부적인 해석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아보았다.

윤동주 시의 특성은 '서정성'과 '자아성찰'로써 윤동주 시의 서정성은 윤동주의 시를 통해 언어의 아름다움과 서정적인 표현을 중점적으로 학습하게 되며 일제의 탄압

이 가장 심했던 1930~40년대를 살아야 했던 윤동주는 식민지 국민이라는 외적 갈등과 그러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내적 갈등을 겪어야만 했고 윤동주의 시에 드러난 자아성찰은 부단히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면서 고민한 반성적 인식이기에 윤동주의 시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은 특별한 윤리적·미학적 효용을 가진다[3].

또한, 윤동주의 텍스트들은 시인과 화자의 근거리로 인해 시인 자신의 언어와 화자의 언어 사이의 균열이 최소화되어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윤동주의 시는 미학적 화자를 따로 설정하기보다는 시인 자신이 직접 발화의 주체로 나섬으로써 고백적 어조를 동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윤동주의 시를 접할 때는 윤동주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을 듣는 듯한 느낌에 친근감을 얻게 되며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더욱 쉽게 공감해 나갈 것이다[4].

윤동주는 작위적이고 인위적인 시어를 선택하거나 기교를 부리지 않았고 자연물을 통해 자신이 살아온 시대적 현실과 그 속에서의 고뇌를 아름답고 서정적으로 표현 하였으며 티 묻지 않은 감정으로 대상을 노래하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맑고 깨끗한 시어를 통해 시 전반에 서정적인 정서를 주었다. 저항의식을 보인 시에서도 윤동주는 거칠고 어두운 시어 선택보다는 암담한 현실과 그로 인한 슬픔, 고뇌를 정화시킨 맑고 순수한 소재의 시어를 선택하여 시어의 서정성이 돋보이면서 우리나라 현대 시사에 찾기 힘든 '영혼마저 아름다운 시인'으로 자리 매김 되고 있다[5].

윤동주의 시가 서정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자연에서 소재를 택한 것'과 '동심의 순수함'이 시 전체에 묻어 나고 있다는 점이다. 윤동주는 '우주, 천체, 계절, 잎새, 바람, 꽃, 별'등과 같은 자연에서 시의 소재를 선택하여 전원의 언어로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 그의 시는 이러한 밝고 맑은 동심의 세계에서 출발하여 티 묻지 않은 감정으로 대상을 노래하며 동심을 바탕으로 하여 서정성을 절제 드러내고, 착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고 꿈꾸는 휴머니즘으로 회귀한다[6].

윤동주의 시가 사랑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윤동주의 인품과 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시적인 감수성의 정결감' [7]이고, 그러한 윤동주의 시

세계는 어떤 사조에도 영향 받지 않고 오로지 순수한 시심과 깊은 사색을 통해 독창적으로 스스로의 시 세계를 성숙시켜 주옥같은 작품을 남겨 놓았다[8].

선행 연구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윤동주의 자아성찰과 실천의지를 특징으로 내세웠다.

2.2.2 '별 헤는 밤' 해석

윤동주의 별 헤는 밤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별 헤는 밤

윤동주 / 시인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憧憬)과
별 하나에 시(詩)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 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佩), 경(鏡), 옥(玉),
이런 이국 소녀(異國 少女)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스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 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히 멀 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 보고,
흠으로 덮어 버렸습니다.

딴은 밤을 새워 우는 별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9].

별 헤는 밤은 별이 총총한 가을밤을 배경으로 한 젊은 이가 더듬는 회상과 자아성찰이 드러난 시이다. 윤동주는 별을 헤아리며 '가을'은 쓸쓸함과 덧없음을, '하늘'은 맑고 아름다움을, '별'은 회상의 매개체이자 그리움의 세계임을 노래한다. 깊은 향수를 토하면서 현재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는 지금 자신이 지향하고 있는 순수의 세계가 늙은 교수의 강의처럼 무의미하고 부끄러운 일일지 모르지만 자기의 별에도 봄이 오면 자신의 부끄러움은 무덤의 풀처럼 자랑스러운 존재로 되살아 날 것이라고 확신한다[10].

전체 10연으로 이루어진 이 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1-3연)은 별이 총총한 가을밤을 배경으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더듬는 한 젊은이의 모습을 제시하고 두 번째 부분(4-7연)은 별을 하나하나 헤아리며 아름다운 어린 시절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4연과 5연은 어조와 리듬의 변화를 통해 이들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을 인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세 번째 부분(8-9연)은 시적 화자의 자기 성찰 모습을 보여준다. 자신의 이름을 '별'이 내려다보는 '언덕'위에 써 보고 흠으로 덮어버리는 시적 화자의 행위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현재의 시대 상황 속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확인하고 그것을 이겨내려는 갈등을 암시한다. 네 번째 부분(10연)은 지금까지 고통과 시련의 겨울처럼 시대적 아픔과 갈등의 어두운 세계 속에서 고뇌를 거듭했던 시적 화자가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의 핵심은 8-9연이 보여주고 있는 '부끄러움'의 심상과, 10연이 보여주고 있는 '재생'의 심상이다. 9연에서 윤동주는 풀벌레들이 우는 것이 바로 자기의 부끄러운 이름을 비웃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끄러워'진 것이다. 이처럼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부끄러움,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부끄러움, 윤리 지상적 생활 철학에 자신의 실천과 행동이 채 미치지 못했을 때 갖게 되는 부끄러움 등의 이미지가 한데 합쳐져 시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윤동주의 부끄러움은 준엄한 윤리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부끄러움을 그린 9연에 나타나는 자신의 무기력한 상황에 대한 성찰이 10연의 '봄'의 부활과 재생의 이미지로 이어진다. 절박한 상황에서든 언제나 희망과 의지를 잃지 않음은 '기다림'에서 연유한 것이고 윤동주의 나약한 '자기혐오'는 마지막 연에서 훌륭히 극복 되고 있다[6].

2.3 별 헤는 밤의 미적요소

'별 헤는 밤'은 윤동주의 서정성과 자아실현을 비롯해서 스스로의 삶의 치유하기까지의 전 여정이 함께 담겨져 있으며, 간결하면서도 청순한 시어들은 어린 시절 나라를 잃어 청년의 공허함과 잔잔함 속에서의 열정을 함께 엿볼 수 있다.

또한, 별, 하늘 등의 그리운 대상을 지칭하는데 이는 잃어버린 조국과 자신의 주체성의 혼란에서 야기되는 그리움과 공허함을 느낄 수 있다. 특히 그리운 대상으로 직접 묘사되는 어머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휴식과 자기 치유의 대명사로서 가까이 있지 않지만, 늘 함께 있는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미적요소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그리움을 지칭하는 별, 하늘, 그리움을 미적요소로 선정하고 실제적인 별자리와 하늘의 깊이, 그리움, 동심으로

해석하고 디자인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별 헤는 밤에는 그리움과 쓸쓸함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아갈수록 미래지향적이며 굳건히 자신을 다지는 형태로 시가 완성되는데, 이것은 대표 할 수 있는 미적요소들은 봄의 싱그러움, 파란 잔디의 색채, 풀 형태 등으로 해석하고 이를 중심으로 디자인으로 시각화하려 한다.

2.4 시각화

운동주의 별이 빛나는 밤의 형상화는 다음과 같다.

2.4.1 새벽이 올 때

[Fig. 1]은 운동주의 별 헤는 밤의 그리움의 주체인 별에서 시작되었다. 그리움이란, 행복할 때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움은 적막하고 고요하며 쓸쓸함을 동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마음을 구의 형태로 해석하고 밤하늘의 별을 대변할 수 있도록 백동에 드릴링을 하여 별자리로 구체화 하였다. 마음의 공허함은 중간에 짙은 녹색의 만호 원석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쓸쓸함은 마음에서 뻗어 나오는 세 개의 뾰족한 선으로 대신하고 미묘하고 복잡한 심경을 에노다이징 기법을 통해 다채롭게 표현했다.

구 형태를 받치고 이보다 앞서 뻗어나가는 적동의 유닛은 풀을 시각화 한 것으로 달이 작아지면서 밤하늘의 별자리를 뒤로 깨끗하고 고요한 아침이슬과 자아성찰을 통한 인고의 시간 후 느낄 수 있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전개하였다. 세상 만물이 고요함을 깨고 이동하는 아침이슬의 힘찬 모습은 각지고 방향성을 가진 형태로 리드미컬하게 나타냈다.



[Fig. 1] When dawn

2.4.2 하늘 시계

[Fig. 2] 작품은 별 헤는 밤의 그리움을 시간적 의미로 해석하여 시계로 나타냈으며, 작품1과 같이 공허한 화자의 마음을 대변 할 수 있도록 구 형태로 나타내었다. 이 구는 양 옆의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 지는 선이 받히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움의 대상인 어머니를 활짝 팔 벌려 맞이하는 아이의 모습을 단순하게 시각화 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사람이 서 있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다리 부분 사이로 위로 향하고 있는 화살표는 별 헤는 밤의 미래지향적 미적요소인 봄의 시작을 나타내는 매개체이며 파란 잔디를 표현하기 위해 작품 전체에 녹청기법으로 착색 하였으며, 황동과 아게이트 원석을 사용하여 구름과 원 형태의 문양으로 봄의 싱그러움을 나타냈다.



[Fig. 2] Sky Watch

3. 결론

형태가 없는 무형의 문화를 시각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시작된 본 연구는 공감과 아름다움을 한곳에 제시하기 위해 금속조형디자인을 전개함에 있어 한국인에게 가장 사랑 받고 있는 운동주의 '별 헤는 밤'을 시각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형태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운동주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별자리, 하늘의 깊음, 그리움, 동심, 봄의 싱그러움, 파란 잔디의 색채, 풀 형태 등을 미적요소로 선정 디자인으로 전개하여 금속으로 완성하였다. 그 결과, 시문학을 현대적 감성과 함께 금속조형으로 완성함으로써 무형의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시각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미적요소를 선행연구를 통해 선정함으로써 객관적 시각을 유지할 수 있고 금속조형 디자인에 내포된 의미를 통해 공감과 아름다움을 함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무형문화의 시각화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다양하게 활용되어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ACKNOWLEDGMENTS

This paper was supported by wonkwang university in 2015

REFERENCES

[1] DOI:<http://endic.naver.com/enkrEntry.nhn?sl=kr&entryId=b2fd141ffcb4a0cb63c15a8bd03e7cb> 2015.12.01

[2] DOI:<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3201&cid=40942&categoryId=33384> 2015.12.01

[3] Cho Eun Ju,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Yun Dongju's Poem and the Teaching Method with the Highschool Textbook",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p1, 2013

[4] Han, Mi-ran, "The Study of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with Yoon Dong-Ju's Poem for Personality Build-up - focused on Poetry Therapy",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p55, 2014

[5] Kim, BoRam, "A Study on Educational Plan for Yun Dong-ju's Poems",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16, 2015

[6] Jo, Eun-ju,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Yun Dongju's Poem and the Teaching Method with the Highschool Textbook", Dankook University, p10-11, 2013

[7] Hong, Gi-sam, "World of loneliness and resistance, Monthly literature", p33, 1974

[8] Ma, Gwang-su, "Yoon Dong-ju upon research seoseol,

Yoon Dong-ju sironjip", Right geulbang, p205, 1989

[9] Yoon Dong ju, "One night, Counting the Stars", Book Terrace, 2015

[10] Park, Hae-kyoung, "A study on Yoon, Dong-joo's poet",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p40-41, 1999

[11] Jeong Myoung Sook, "Comparative study on the types of development in culture contents utilizing literature writers", Graduate School of Culture Sungkonghow University, 2013

[12] Lim Weol-Nam, "A study of Lee Yuk-saand Yun Dong-ju's Poetic Spatial Imagination and consciousness of Existence", Graduate School of Paichai University, Daejeon, Korea, 2014

[13] Yun, Ho Gyeong, "A Study on the 'Stimmung' of Anxiety in Poetry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14

[14] KIM, Hyung-Tae, "Study on the existential consciousness in the poetry of Yun Dong-Ju",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15

[15] Hahn Ji-min, "A study on the family-representation in Yun Dong-Ju's poetr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2015

[16] Seok-Beom Yoon, Eun-Young Jang, "A Development of Creative Capstone Design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5, No. 4, pp. 15-20, 2014.

[17] Ho-Jin Song, Eui-Tae Jeong, "A Study on the utilizing parody and pastiche in Contemporary Art Work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201-212, 2015.

고 승 근(Ko, Seung Geun)



- 1984년 2월 :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금속공예과 (미술학 석사)
- 2006년 2월 : 동신대학교 보석공학과 (공학박사)
- 1991년 2월 ~ 현재 : 원광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금속공예, 장신구, 디자인, 보석학.

· E-Mail : kogeun@wonkwang.ac.kr